

경북도, ‘다양성·전통성·유연성’으로 도민과 미래혁신 추진

경북도 미래비전 2045 선포식

인간 중심 네트워크 공동체 구축
영상 ‘미래에서 온 편지’ 눈길
이철우 “2045년, 세계 중심 설 것”

경북도는 지난 5일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경북도 미래 비전 2045’ 선포식을 열고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을 준비하기 위한 도정 비전을 제시했다.

선포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 임종식 경북교육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형동 국회의원, 22개 지자체장과 도민이 참석해 경북의 미래 구상을 공유했다.

행사는 미래학자 클레멘트 베졸드 박사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의 비전 개요 설명, 인공지능(AI) 도지사의 ‘미래에서 온 편지’, 2045 미래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도는 미래 비전으로 ‘전통과 혁신



지난 5일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경북도 미래 비전 2045’ 선포식.

/경북도

의 중심, 희망 미래를 여는 경북’을 제시하고, 도민 의견을 반영해 도출된 다양성·전통성·유연성을 3대 핵심 가치로 선언했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베졸드 박사는 강연에서 “진정한 비전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창조하겠다는 대담한 약속”이라며 “경북은 가치·기술·공간 혁명을 통해 복지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간 중심네트워크공동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용석 교수는 미래비전 2045가 인구구조 변화, 제조업 위기, 농업업 개방, 산업구조 개편, 환경 규제 등 주요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도민과 소통·협력할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초고속 비행기가 취항한 대구경북 신공항, 첨단과학도시에서 열리는 홀로그램 글로벌 포럼, AI 로봇이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미래 장면을 담은 ‘미래에서 온 편지’가 영상으로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이어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로 쓰는 편지’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경북의 ‘미래비전 2045’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45년은 광복 100주년이자 경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중심에 서는 해가 될 것”이라며 “도민 모두의 의지를 모아 비전을 실천해 경북을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남낙동강협의회

낙동강 페스타 방문인증 행사

경남 낙동강협의회(양산·김해·밀양, 부산 북구·사상구·강서구·사하구)는 9월부터 11월까지 7개 지자체의 대표 가을축제를 연계한 낙동강 페스타(FESTA) 방문인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낙동강 페스타는 낙동강을 따라 펼쳐지는 축제를 하나로 묶어 공동 홍보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획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축제 현장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소셜관계망서비스(SNS)에 지정 해시태그(#낙동강협의회, #참여한 축제명)와 함께 게시하면 자동 응모된다.

/경남=이도식 기자

청도군

강릉 가뭄에 생수 7만병 지원

청도군은 강릉시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식수난 해소를 위해 지난 5일 생수 7만 병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에는 18톤 화물차 8대가 투입돼 현지까지 직접 운송이 이뤄졌다.

최근 강릉시는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저수율이 크게 낮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청도군은 하루빨리 가뭄이 해소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군민의 뜻을 모아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청도(경북)=김준한 기자

부산시 인재개발원

HDR 교육과정개발 ‘장관상’

부산시 인재개발원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43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HRD) 콘테스트’에서 교육과정개발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콘테스트는 전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발전과 공율을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주최하는 경연대회다.

시 인재개발원은 이 대회에서 전체 2위로 입상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인재개발원은 자체 개발한 ‘초임팀장 역량맞춤형 원데이(1DAY) 집중교육’으로 이번 콘테스트에 출전했다. 전문심사위원과 청중평가단으로부터 교육과정 설계의 혁신성과 현업 적용도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부산=이도식 기자

화순군

오늘부터 ‘화순팜’新시스템 운영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군대표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을 전국 최초로 B2B2C(기업-소비자-플랫폼) 융합형 모델로 전면 개편하고, 8일부터 새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 단방향 판매 구조에서 벗어나 ▲소비자 맞춤형 추천 ▲기업 전용 대량 구매 채널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협업 등 양방향 유통혁신 플랫폼을 구현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공공 쇼핑몰 중 최초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화순(전남)=양수영 기자

영암군-장흥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연구개발, 사업화, 수출까지
전주기 성장 지원 모델 구축

영암군(우승희 군수)과 장흥군(김성군수)이 손을 맞잡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섰다. 양군은 지난 5일 장흥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인프라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농업생명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과 연계된 것으로, 영암군과 장흥군은 각각이 보유한 바이오소재, 산업기반, 혁신 주체를 집적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수출까지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산업생태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로 지구 지정 시 국비 지원 인프라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영암군-장흥군, 그린바이오 육성 상생 업무협약.

/영암군

이날 협약식은 양 군수와 부서 실·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가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그린바이오 산업육성 관련 지역 인프라 협력 ▲행정지원과 기업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구축 ▲기획-연구개발-실증-사업화-시장진입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포항시, 총 90억 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

청림·일월동, 공모사업 최종 선정
고령 친화 생활마를 조성 계획

포항시 청림·일월동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총 9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와 건물 노후화로 활력을 잃은 소규모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 수리, 빈집·공터 활용,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청림·일월동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노후 건축물 증가, 철강공단 배후의 환경 문제로 생활환경이 악화돼 도시재생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포항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 구상을 마련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모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공모에는 포항을 포함해 10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을 ‘공해 문제 해결, 맑은 충전 프로젝트’를 비전으로 삼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고령 친화 생활마를 조성을 위해 ▲일월청림 건강센터 조성 ▲집수리동행사업 ▲친환경 보행환경 개선 ▲일월청림 클린센터 조성 ▲도시재생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 참여와 지역기업 협력으로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호국역사문화관 조성, 연오랑세오녀 파크골프장 조성 등 청림·일월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26년 본격 착수해 2029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부산시, 지역자활센터 10곳 ‘최우수·우수’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전국 확대

16개 광역시도 중 최다 선정

부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해운대 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한 10곳 지역자활센터가 최우수와 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부산 18개 지역자활센터 중 10곳이 선정됐다. 16개 광역시도 중 부산이 가장 많이 선정됐다.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의 역량을 향상해 자활 참여자의 자활 촉진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참여자 자활역량 증진 ▲사업단 운영성과 ▲자활기업 활성화 ▲센터 운영전문성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 총 16개 세부 지표로 진행됐다.

평가에서 ▲북구·해운대·기장 지역자활센터 총 3곳이 최우수 센터로 ▲동래·부산진·사하·동구·북구·영도·마포·강서구 총 7곳이 지역자활센터가 우수 센터로 선정됐다.

최우수로 선정된 3개 센터는 특히 사업단 운영성과, 자활기업 활성화, 참여자 자활역량 증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과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3개 센터는 각각 2000만원, 우수 등급 7개 센터는 각각 1519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광주시 시행 정책… 내년부터 반영

광주시가 직장인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이재명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인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반영돼 2026년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7일 밝혔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광주시가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돌봄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정책으로 광주시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에 지원하고 있다.

첫 시행 당시 87개 사업장 100명의 근로자에게

로자에게 66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 101개 사업장·126명·8625만원, 2024년 174개 사업장·306명·2억2440만원, 올해 500명·4억원으로 늘었다.

광주에서 시작된 정책은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모델로 자리잡았다.

또 정부는 광주가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책을 문의했으며 지난달 29일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했다.

고용노동부는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 학부모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려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발전시켰다.

/광주=양수영 기자